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우리 시대의 리더

불가능하다.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전략과 비전에서 비롯된다. 과연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가?

두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서로를 대했다. 보통 우리의 태도와 표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결국 형식까지도 변화시킨다. 그것은 사심(私心)의 문제이다. 사심 없는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나 왜곡을 배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미국, 북한, 남한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와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심 없는 사람의 태도와 표정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든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고, 나아가 양쪽의 공동체 성원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리더의 문제이다. 리더는 누구인가?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결국 훌륭한 리더란 자신의 조직을 잘 이끌어 가는 사람일 것이다. 혹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기

질을 언급하기도 한다. 개인적 혹은 사교적 만남이라면 기질의 문제로 쉽게 치환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순한 기질을 넘어서는 현실 판단과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이 두루 담겨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잘못된 리더를 선택한 결과, 아직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 시대의 리더는 단순히 인성이나 도덕성의 차원을 넘어 똑똑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과제가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리더 개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 개인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조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구성원이 리더의 결정만 기다리게 되면 조직은 실종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짜 뉴스가 유행하는 이유는

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 공급 과잉의 문제도 있지만,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분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광주시다. 시는 내년에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북한 선수단 참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만나 북한선수단 참가 제안을 한 데 이어 4일 방북한 이병훈 부시장도 북측에 선수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북한 선수단 파견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300여 명 규모의 북한 응원단도 따라올 것으로 보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흥행이 보장될 것이라는 믿을 때문이다.

여기에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평양예술단의 답방 공연을 광주에 유치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에서 한두 차례 개최할 경우 광주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평양 예술단 답방 공연 및 북한 선수단의 수영선수권대회 참가가 이뤄진다면 광주는 대북 교류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 전남도와 전남 지역 사·군들의 대북 교류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남도는 민선 7

社說

남북 평화·교류의 꽃 광주·전남이 피우자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타고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대북 교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광주시다. 시는 내년에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북한 선수단 참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만나 북한선수단 참가 제안을 한 데 이어 4일 방북한 이병훈 부시장도 북측에 선수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북한 선수단 파견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300여 명 규모의 북한 응원단도 따라올 것으로 보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흥행이 보장될 것이라는 믿을 때문이다.

여기에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평양예술단의 답방 공연을 광주에 유치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에서 한두 차례 개최할 경우 광주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평양 예술단 답방 공연 및 북한 선수단의 수영선수권대회 참가가 이뤄진다면 광주는 대북 교류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 전남도와 전남 지역 사·군들의 대북 교류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남도는 민선 7

기 들어 남북 교류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23개 사업을 발굴했다. '땅콩 협력'이란 이름으로 함경북도 산모와 영유아에게 미역과 이유식을 보낼 계획이고, 평양에는 2010년 중단된 발효콩팥 제2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목포 시 역시 국도 1호선의 시발점이라는 공통점을 활용해 신의주와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순천시도 조례를 제정해 교류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북한과 공동으로 두루미 서식지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체들의 적극적인 대북 교류 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 협력 구축이란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 최전선에 광주·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나선다는 것도 좋은 일이다. 다만 즉흥적으로 추진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종전 선언이 성과를 낸다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로 이어져 곧바로 대북 교류 물꼬가 트일 것이다. 눈앞에 다가온 대북 교류에서 앞서가려면 한 번 더 점검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불안에 떨지 않도록

원전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지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얼마나 갖추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새삼스럽게 드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광 한빛원전에서 907조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 앞서 이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 사고 발생 시 피해액은 한빛원전 907조 원, 고리원전 2492조 원, 월성원전 1419조 원, 울진원전 864조 원 등이었다. 이 액수는 일본경 제연구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액을 분석한 방식에 따라 원전 지역 인구 밀집도·지역 총소득·임금 등을 보정한 값

이다. 한빛원전의 경우 1차 피해 범위인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살고 있는 인구는 후쿠시마(14만 명)와 비슷한 13만 9078명이지만 광주가 직선거리로 40km 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울산시는 2019년~2028년 원자력방재태운을 조성해 방재 지휘와 훈련, 방재 연구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에서는 과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인데, 평상시 세심한 점검으로 지역 주민의 불안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선진화된 방사능 방재 시스템 및 훈련 시설 구축, 유사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시설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

기고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 지방재정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겠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면 어느 정도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2호선은 돈 먹는 하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1호선의 작년 운영 적자는 453억 원입니다. 거기에 2호선까지 개통하면 연간 약 8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중 광주 북구의 재정 자주도가 최하위이며 남구는 139위, 동구도 하위 20위권입니다. 광주 시 재정 자립도(31.47%)가 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광주 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한 쪽에 치우치면 다른 부분은 감소할 것은 상식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 교육, 복지, 문화 등이 그것입니다. 빛을 내서 지하철 2호선을 만들게 되면 광주는 빛고을이 아닌 '빛고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시철도 공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사업비

의 60%를 부담하고 연간 1000억 원 분산 투자와 교육, 복지, 일자리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광주·전남 인구의 감소의 진실입니다. 매년 수천 명씩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현재 146만 명에서 2호선 공사기간 중 130만 명 대에 진입할 것입니다. 떠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은 광주의 미래 청년들입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도 자연 감소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신규 택지 지구 개발 등 도시화로 광주가 2.5배 확장되므로 비스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 여러분은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론화는 능동적 시민 참여와 학습, 숙의입니다. 시민 참여형 의사 결정 방법입니다. 시민 참여형 숙의 조사는 시민들이 충분한 학습과 토론, 성찰을 통해 자신의 판단, 선호, 관점이 성숙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열린 사회를 위한 소

통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숙의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숙의형 공론화와 건설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론화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지하철 2호선 추진 방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론화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위원회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찬 바람이 불기 전이라는 시한에 맞추어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11월 10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와 민관 협치 모델이 되어야 광주 정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한 여론이 되어야 합니다. 느리더라도 바로 된 공론화가 답입니다. 침묵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공사는 진행됩니다. 침묵은 또 다른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도하면서 미래의 광주를 위해 깨어 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고

건설업계의 '달빛동맹'

취약한 광주 지역 경제에 특목히 효과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광주의 아파트 문화가 대구 시민의 삶 속에 파고들어 휴식을 제공하는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한다면 영호남 간 이질적 정서와 문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와 대구는 2009년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머리글자를 따 '달빛동맹'을 맺었다. 영호남 화합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뜻이 담긴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 민간 중심 교류뿐 아니라 대형 SOC 사업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달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마침내 시동을 걸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광주-대구 간 191.6km를 고속철도화하는 국책 사업이다. 때맞춰 광주의 건설 브랜드도 대구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게 된 것이다. 필자는 가장 민간 보금자리 '달빛동맹'으로 명명한다.

광주의 메이저 건설사가 전국적으로 매출세를 신장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의 건설계는 IMF와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워기를 기회'로 만든 자신감과 강인한 DNA가 있다. 필자가 광주은행에 근무

할 때이다. 1998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건설사와 협력사가 부도 위험에 처했을 때 뼈를 깎는 고통의 기업 구조 조정과 지역민들의 눈물,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원화 대출 연체율은 7월 말 0.56%로 6월 말 대비 0.05% 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에 비해서는 0.08% 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향후 시장 금리 상승,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악화로 연체 증가율도 예상된다. 따라서 무리한 공격 경영을 지양하고 도산을 예방할 수 있는 상시적 리스크 관리, 지속적 혁신적 품질 경영을 통한 완벽한 시공,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한다면 소비자 선호하는 명품 아파트로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매출액은 더욱 날개를 달 것이다.

나아가 광주 브랜드의 아파트가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입성하고 다른 지역민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진정한 '에향 광주'로 인정받고 지역간 편견과 정쟁은 과거 유산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어 본다.



김해경  
WomenLeadership 대표  
남부대 겸임교수

최근에 광주의 한 건설사가 대구시 수성구의 한 중심 중동에 건립하는 모델하우스 오픈 행사가 다녀왔다. 멀리 대구까지 간 이유는 광주의 브랜드가 대구에 진출한 뜻깊은 자리라는 점에서 지인과 동행했다.

대구 수성구 심장부에 입성해 가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 주부들의 삶 속에 파고 든다는데,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실제 내가 방문한 주말과 휴일 사용동안 3만 명에 가까운 대구 시민들이 모델하우스를 다녀갔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2021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약 600가구 규모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 자금 규모는 약 400억 원이라는 데, 생산 제조 기반이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노벨상의 계절이다. 지난 1일 생리의 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가 이미 발표됐다. 오늘은 노벨상의 꽃인 평화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특히 문학상이 성 추분으로 일목진 가운데 평화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역대 평화상 수상자로는 앙리 뒤낭, 알베르트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테레사 수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단체로는 국제 적십자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엔평화유지군 등이 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 그리고 북한과의 화해 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우리 귀엔 '김대중'으로 들렸던 18년 전 군나르 베르그 노벨위원회 위원장의 수상자 발표에 환호와 감격으로 온몸에 전율이 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올해 수상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2018년 지구촌 최대의 이슈라는 반증이다. 지난해 김정은과 트럼프는 거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핵전쟁 직전까지

수상'이 최고의 시나리오일 텐데, 과연 노벨상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평화상 후보 신청이 올 2월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3차 모두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차라리 1년 뒤 한반도 평화 체제를 완성하고 공동으로 수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든다. 오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평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수상 때처럼 방화공작과 취소 공작 같은 상식 밖의 치졸한 행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유재만 편집1부장 부국장 jkyou@

**노벨 평화상**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2-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2-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